

Reconstruction of the Ideal of Educated Person for the New Era

Young Sook Kim, Cambridge Mass.

새 시대를 위한 이상적 교육 받은 인간성의 재정립*

교육철학 박사 김 영숙

I. 서론

현대의 세계는 공산주의의 붕괴와 그에 따른 사회-정치-경제 분야들의 변화를 위시한 혁명적인 변화들을 보아왔다. 이러한 변화들이 가져온 가장 시급한 과제들 중의 하나는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과 사회의 새 질서를 세우는 일이다. 저자는 현재 상황의 이러한 국면을 새로운 이상적인 교육 받은 인간상을 정립 하라는 시대적 요청으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새시대를 위한 가치들은 그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전혀 실현이 되지 못할 것이며, 또한 마찬가지로 새로운 가치들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새로운 질서에 도달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논문을 통하여 저자는 이상적인 교육 받은 사람들이 표출해 주기로 기대되는 삶의 양식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새시대를 위한 이상적인 교육 받은 인간상의 재정립을 꾀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자는 우선 새시대를 위한 이상적인 교육 받은 사람에게 역사적으로 요구되는 자질들과 더불어 이상적 교육받은 인간상의 역사적인 발달을 논하고자 한다. 저자는 새시대의 이상적인 교육받은 인간이 획득하리라 기대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이라는 것을 제안할 것이다. 그것은 인류의 공동선, 즉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방식으로써 세계사회의 활발한 성원이 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다음으로 저자는 세계주의와 관련된 다른 개념들 즉 국제주의, 문화적 교호주의와 같은 개념들을 고찰할 것이다.¹ 저자는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일하는 것이 국제주의의 강령이라고 여긴다.

국제주의의 한 방식으로서 세계주의는 개인들의 삶이나 그들이 속한 집단들 즉 민족들 및 국가들 또는 문화적 공동체들을 직접 세계적 관점에 비추어 세계

¹ Kim, Young Sook, A Philosophical Analysis of the Concept of Education and Its Significance to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1986.

적인 차원에서 융화해 보려는 이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본다. 반면 국제주의의 또다른 방식으로서 각 문화들의 특수성을 정당하게 이해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국제간의 상호작용을 도모해가는 태도를 저자는 문화적 교호주의라고 정의한다. 나아가 저자는 한편으로는 융화되고 통일된 세계문화의 창달을 이념으로 하는 세계주의를 궁극적 지침으로 하면서, 동시에 문화적 교호주의를 발판으로 삼아, 개인들 및 개개인의 집단적인 창조력의 표출인 각 문화들의 인류의 삶 및 인생의 의미의 증가에 기여한 업적들을 인정하면서 문화간에 상호 보완적인 이식을 통해 각 문화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 진정한 국제주의가 실현되는 것임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나서, 저자는 진정으로 개인이 국제화 되려면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자유롭게 발휘하여 인간의 행동들과 사회의 규범들을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하며, 단순한 개인 중심적인 이해나 또는 문화결정론적인 이해를 넘어서 역사적으로 주어진 맥락 속에서 개인과 문화들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현상들에 내재한 의미들을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이상의 고찰들에 바탕하여, 결론적으로 저자는 새시대를 위한 이상적인 교육받은 인간은 자신과 타인들의 전통들이나 문화에 스며있는 보편적 인간성을 발견하고 그러한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이해에 바탕하여 현재와 미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들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는 세계시민임을 밝힐 것이다. 나아가 저자는 새시대를 위한 이상적 교육받은 인간은 서로 다른 문화들 사이의 상호 보완 이식을 통해 새로운 삶의 양식을 창출해 내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또한 저자는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는 일은 이 역사적인 전환기에 있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임을 선포할 것이다.

II. 이상적 교육받은 인간상의 역사적 발달

사회현상들이란 인간의 활동들, 즉 인간들과 환경과의 상호 작용들의 결과이다. 선하고 악한 현상들 모두가 그러한 상호 작용의 결과들로서 나타나므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동시에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세계 평화라는 것은 개인의 마음을 제어하거나 변화시키거나, 또는 공동의 선을 향한 의지를 갖도록 재정향을 시킴으로써만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흡사한 판단으로 고대의 철학자들은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교육 사이에 중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 사회가 국가라는 틀을 갖추게 되자 젊은이들을 국가의 지도자들로서 키워내는 것이 교육의 주된 목표가 되었다.² 그들이 믿은 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양 교육을 통하여 마음을 도야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마음의 도야가 여가를 가진 지배계층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일이라고 본 것이었다.

동서의 고대세계의 지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공자와 소크라테스는 정의와 평화가 실은 개인의 마음가짐으로부터 시작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공자는 개인이 충동이나 불순한 감정에 치우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사람은 우선 자기자신을 수련하고 가정을 제대로 다스린 다음 국가를 다스리고 오직 국가를 제대로 다스릴 줄 안 다음에야 세상을 평정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맹자는 공자의 인을 이상으로 삼으면서도 왕도 정치의 본질은 백성들에게 이타심과 정의와 예의를 가르치는 일이라고 보았다.³

이와 비슷하게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정의는 사회전체의 바름의 문제라기 보다는 개인의 미덕의 문제였다. 플라톤이 내건 사회적인 정의란 추상적인 관념은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을 가정함으로써 비민주적인 것으로 전락하였으나 사회와 개인 모두에 있어서 탐욕이 아니라 판단의 기능이 통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그의 신념은 근본적으로 옳은 것이다. 플라톤은 이상적인 교육받은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이성의 원칙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았다.⁴ 정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만이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것이라고 플라톤은 여겼다.

비슷한 이유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합리적 원리에 따르는 이성의 활동이 교육 받은 사람의 요체라고 하였다.⁵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성장이야말로 개인의 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또한 강조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복리는 개인의 복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 모두는 교육을 통하여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2. 한기연, *교육사*, 서울: 법문사, 1965.

3. 이 은상의 편집, *논어*, 서울: 삼덕 출판사, 1981. pp. 49, 553.

⁴ PLATO, *Republik: Laws*, I: 643e-644b, in Hamilton, Edith and Huntington Carns, Ed., *PLATO: The Collected Dialogu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⁵ ARISTOTLE, *Politics*, II: 13 - VII: 7, in MCKEON, Richard, Ed., *The Basic Works of Aristotle*, New York: Random House, 1941.